

북한개발소식

2024 DEC

12

통권 230호

이달의 주제

미 대선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한 선교

탈북민 수기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3)

북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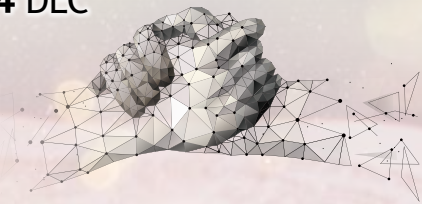
북, “최신형 화성-19형 시험발사…
최종완결판 ICBM”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4 DEC



이달의 주제 :

미 대선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한 선교

- 권두칼럼 01** 미 대선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한 선교
- 칼럼_1 10** 남성욱_ MAGA 시대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과제와 정책 방향
- 칼럼_2 16** 박인휘_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북한 문제 전망
- 칼럼_3 20** 문성묵_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칠 영향
- 탈북민 수기 26** 김열매 성도_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3)
- 서평 32** 북한법 변화를 통해서 보는 현대 북한의 이해
- 북한뉴스 34** 북, “최신형 화성-19형 시험발사… 최종완결판 ICBM”
-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



미 대선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한 선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미국의 제 47대 대통령으로 전(前)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의 국가 노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로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북한과 파격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줄 대북 정책과 그에 따른 북한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기도의 제목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 대외 정책 변화와 한반도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언론의 예상을 깨고 완승을 보여주었다.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7개 경합주를 휩쓸면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12명을 확보하며 해리스(226명)를 크게 앞섰다. 게다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승리함으로써 ‘레드 스위프(Red Sweep)’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집권 2기의 트럼프는 대선 완승과 의회 내에 강력한 지지기반 구축 등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기반을 확보했다.

미 대선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해볼 수 있겠으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으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이 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위시한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의 대외 문제 개입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이 트럼프 승리를 견인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

마스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들 전쟁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대외 문제 개입 자제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대외 문제 관여 축소를 이야기해온 트럼프에 유리한 선거 지형 조성으로 이어졌다. 그런 만큼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대외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 또는 수정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대외 문제에 대한 관여를 축소(retrenchment)하거나 자제(restraint)하며 국력을 비축하고, 이를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할 것이 유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트럼프는 그 동안 자신은 김정은과 잘 지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북한과의 파격적인 대화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트럼프는 지난 7월 공화당 전당 대회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그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 왔다.¹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가 집권 1기 당시처럼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미국이 북한과 어떤 주제의 대화를 진행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로 일컬어지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구해왔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1 "핵무기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트럼프 또 언급, 연합뉴스 (2024.10.11.),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1017300071>>

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CVID와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이러한 방식의 북핵 대화는 한계에 봉착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협상을 재개하고자 할 때 그 난이도가 전보다 더욱 상승했다고 분석한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대화에서 쓴 맛을 본 기억이 있는데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가 2018~19년 당시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2024)²은 이미 싱가포르와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깜짝 만남까지 세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북한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측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탐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이 트럼프의 초대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황일도(2024)³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년의 시간 동안 달라진 북측의 전력 수준과 제재 체제의 약화 등을 감안할 때 이른바 ‘가격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북러 밀착에 따라 제재 완화 혹은 중단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크기 또한 이전에 비해 매력이 떨어져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트럼프가 북핵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이 북핵 폐기가 아닌 핵군축, 즉 북한의 핵동결과 무기 감축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간 북한은 꾸준히 핵 폐기가 아닌 핵 군축 프레임을 밀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당시를 회상해 보더라도 2018년 4월 북한은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면서 결정문에 ‘비핵화’ 대신 ‘핵군축’을 언급하였다.⁴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도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일종의 핵군축을 제의하기도 했다.

핵 군축 협상에 대한 우려

2023년 12월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기존의 CVID 정책을 포기하고 북핵 동결을 추진할 거라고 보도해서 파장을 일으켰다. 시간만 낭비하는 비핵화 협상 대신 더 큰 위협인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능력을 동결하고 추가 핵개발을 중단하며 검증을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은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⁵ 사실 북핵 문제에 있어 군축 협

2 이상현 (2024), “미국 실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024.11.12.), 4.

3 황일도 (2024),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 2.0? 2018년과 2025년의 차이”, 외교안보연구소 IFANS FOCUS 2024-12K (2024.11.12.), 1-7.

4 “北 ‘비핵화’ 대신 ‘핵군축’ 언급...다목적 카드?”, YTN (2018.04.22.)

5 전성훈 (2024),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북핵정책과 북·미 핵군축협상 전망”,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024.11.07.), 5.

상 가능성은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거론되는 것만은 아니다. 근래 미국 정가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공히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핵군축이 거론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단기에 핵 폐기가 어렵다면 위협의 수준을 동결·축소하는데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국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대선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정강 정책 모두 ‘비핵화’ 용어를 삭제했으며,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빠졌다.

만약 북한과 핵군축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대화 진행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은 러우 전쟁이나 중동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있다. 특히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에는 북핵 문제가 비교적 독립적인 사안이었다면 현재 북핵 문제는 러우 전쟁과 그에 따른 국제 정세와 얽혀 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에 대하여 파병 등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협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의 이유가 단순한 의리나 경제적 이득만이 아닌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황일도(2024)⁶는 최근 대규모 파병과 관련하여 북러 밀착에서 평양이 기대하는 반대급부가 단순한 경제협력이나 낮은 단계의 군사적 조력이 아니라 러시아를 통해 핵과 미사일 전력을 완성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한다. 게다가 북핵 대화에서 대북 제재 해제는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제재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만큼 원활한 북핵 대화를 위해서는 러우 전쟁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러우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워온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미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북한에 대한 민감기술 제공 역시 한층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북핵 대화는 러우 전쟁과 미러 관계의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급하게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군축 협상은 통상 십여 년이 걸리는 장기 레이스이다. 또한 적국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군축 협상의 특성상 북핵 대화가 군축 협상으로 진행될 경우 미국과의 근본적인 관계 개선이 아닌, 군사적 위기관리 또

6 황일도 (2024), 앞의 글, 2-3.

는 확전 통제를 위한 협의가 주목적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고자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전성훈(2024)⁷은 북한이 핵군축협상에서 미국의 차기 및 차차기 행정부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을 두려할 것으로 분석했다. 즉 북한이 협상 판을 벌여 놓고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정치·외교·전략적 국격 상승과 발언권 확대, 경제 발전 등 다양한 성과를 얻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로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에 나서게 될 때, 이것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크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북한과 북한의 핵 능력 감축 또는 동결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및 주한미군 감축 등을 교환하는 조건 등으로 북핵 문제에 합의한다면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리로서는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으로 내몰게 될 수 있다.⁸ 물론 핵 비확산에 진심인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며, 핵군축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장기 목표로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중간 단계로서 중단기적으로 북한 핵능력의 동결 및 감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핵 폐기 자체를 전제로 하는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용환(2024)⁹은 북핵 군축 협상시 예상되는 문제점 중 하나로 한미일의 위협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미국은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우선 제거하고



〈올 4월 진행된 북한의 역내용 전술 핵무기 중 하나인 초대형 방사포 시험 장면(위)과 올 10월 31일 진행된 장거리 전략 핵무기로 꼽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9형의 시험발사 모습(아래)〉

7 전성훈 (2024), 앞의 글, 6.

8 정재용 (2024), “트럼프 귀환과 대한민국의 과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 브리프 (2024.11.09.), 4-5.

9 최용환 (2024), “미국 양당 정강정책에서 北 비핵화 언급 삭제, 배경과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594호(2024.09.06.), 5-6.

싶겠지만, 한일은 중단거리 전술핵을 더 위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미 한반도 역내 사용을 전제하는 단거리 미사일과 포병 전력 등은 ‘전술무기’로, 광이나 태평양 지역 및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체계는 ‘전략무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전술무기’와 ‘전략무기’ 둘 중의 하나만을 폐기 혹은 감축 대상으로 하는 협상 프레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¹⁰ 또한 핵군축 협상을 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은 협상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결국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 문제와 주변국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에 따른 북미 관계 변화와 예상되는 북핵 대화의 전개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정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인접국가로서 북한 선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과 그에 따른 한러, 한중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 북한 문제와 국제 정세에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우 전쟁의 향방과 종식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 관계를 형성한 반면 남한과는 상당히 냉랭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바라는 극동 지역 개발이나 전쟁 이전 한국과 가졌던 협력적인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쟁 종식 이후 러시아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가 전에 비해 대폭 가까워진 만큼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 관계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북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 종식과 미래 관계 개선에 따라 한러 관계가 회복된다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 일변도가 아닌 보다 완화된 입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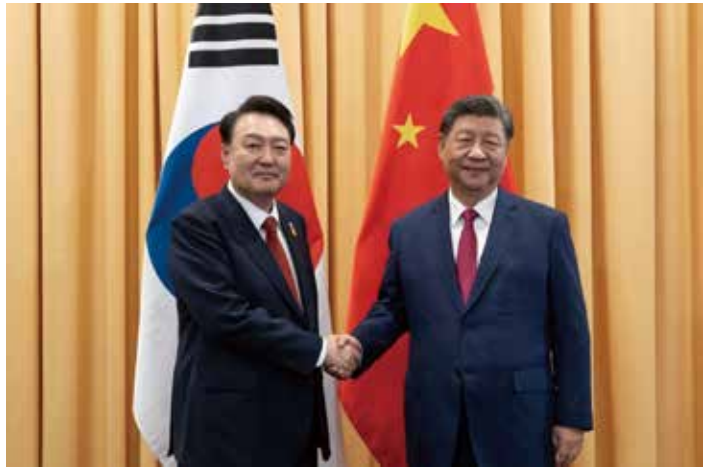
앞으로의 미중 갈등의 향방과 한중 관계 역시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은 수준과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중국 견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트럼프 역시 중국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하는

10 황일도 (2021), “최근 북한의 핵 협상 프레임 전환 움직임”,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주요현안분석 (2021.12.10.).

등 여러 차례 대중국 견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 속에서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역시 11월 3일 중국은 한국에 대해 내년 말까지 15일 이내 방문의 경우 비자를 면제하는 발표를 하여 주목을 받았다. 비자 면제가 통상 국가 간 상

호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는 이례적이다. 특히 한미일 3국 중에서 중국 입국 시 비자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컸던 일본이나 미국을 제외한 한국만을 꼭 집어 비자 면제국에 포함시킨 것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이다. 11월 15일에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방한(訪韓)과 방중(訪中)을 서로 제안함에 따라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기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유력해지고 있다.¹¹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는 관광객 유치 등에 따른 경제적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개기로 변화할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고 러시아에 밀착하는 북한에 대한 견제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는 평가이다.¹²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앞으로의 동아시아 정세가 신냉전을 부르짖는 북한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11월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한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는 양국 정상.〉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미국의 대외정책 및 대북 정책 변화는 북한 선교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에 트럼프의 파격적인 조치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11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할 듯”, 조선일보 (2024.11.18.)

12 해달란 적도 없었는데?” 중국은 왜 한국에 비자면제를 던졌나, 머니투데이 (2024.11.0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0211434293368>>

급속도로 개선되고 북한의 문이 빠르게 열리게 된다면 북한 선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협상이 장기화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화 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미 북한이 선대의 유훈까지 포기해가며 적대적 두국가론을 채택한 상황에서 이는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필수적인 북한 선교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인접국으로서 선교의 교두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 및 한중, 한러 관계의 향방에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혼란스러움이 있는 이때가 한반도와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앞으로의 북미 관계와 예상되는 북핵 대화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트럼프 당선으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지만, 북한이 목표하는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미국의 핵 폐기 사이에는 분명 커다란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잘못 풀어지게 될 경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의 핵무장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미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딛고 북한 핵이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이 현재와 같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에서 벗어나는데 진전이 있도록 기도하자.

원활한 한중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자. 중국은 북한 선교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하지만 과거 미국의 사드 배치를 기점으로 선교사 대량 추방 사태를 겪는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선교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생각할 때 과거와 같은 선교사 추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고 안정적인 사역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도가 요구된다. 거기에 더해 북중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접촉점이 확대되어 중국을 통한 북한 선교의 문이 더욱 넓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러우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고 이를 통해 해외 북한 선교 루트의 회복과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러우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피흘림이 있었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 신음하는 일이 하루 속히 멈추어 지도록,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또한 러시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선교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러우 전쟁 장기화와 북러 밀착 및 한러 관

계 악화 등으로 인해 선교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수습되고 러시아가 다시금 북한의 영혼들과의 귀한 접촉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특히 예상되는 전후 복구와 극동 지역 노동력 필요에 따른 북한의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 확대가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과 학대의 현상이 아닌, 복음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백 모 선교사가 구금되어있는 러시아 모스크바 레포르티보 구치소. 러시아는 올 1월 말 백 모 선교사를 간첩혐의로 체포했다. 한국인이 간첩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씨의 소속단체는 그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며, 간첩혐의는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이미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함께하심을 믿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 관계가 하나님의 손아래서 풀어짐을 통해 북핵 문제의 원활한 해결과 통일로로의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자. 북한의 영혼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권세들의 모략을 무력화하시고 그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리라 확신한다. 🙏

MAGA 시대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과제와 정책 방향

남 성 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대선의 승패는 경제 이슈

미국 대선 당일인 11월 5일자 조간인 뉴욕타임즈 1면 오피니언에 게재된 글을 보고 트럼프의 당선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제목은 ‘이기든 지든 트럼프는 이미 승자다(Win or lose, Trump has already won)’였다. 미국 시사잡지 콤팩트(Compact)의 편집장인 매튜 스미츠는 무역과 이민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이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승패에 관계없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인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개선하는데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성향의 뉴욕타임즈 입장에서도 매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인 것 같았다. 자유무역과 불법이민이 미국 사회의 핵심 화두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했다. 트럼프의 이례적 압승으로 그의 주장이 정확하게 미국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트럼프즘은 이제 미국의 뉴노멀이 되었다.

그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에 따라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을 수입해서 싸게 소비했지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강조했다. 감당할 수 없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용은 한계에 도달했다. 심지어 불법 이민자들의 2세들조차 후속 불법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미국에서 일하는 아들, 딸 및 지인들과 통화할 때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연봉 10만불을 받아도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와 식비를 지불하면 지갑은 어느새 빈털터리가 된다. 외식의 경우 3인 식사를 하면 높아진 팁 때문에 항상 4인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당국이 코로나 보조금으로 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한 결과다. 금년도 전반기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5천불을 넘어섰지만 3억 3천만 인구 중에서 30% 내외로 추산되는 서



민들의 삶은 만만치 않다. 일자리는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쓸 돈이 없다.

높은 물가에 밀려드는 불법이민자와 자유무역에 지쳐버린 중하위층과 백인 저소득층은 트럼프의 귀환을 선택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라는 과거 클린턴 대통령의 구호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은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었다. 막말 논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부차적인 이슈였다.

이번 선거가 지난 4년 바이든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었던 해리스 후보로서는 현직의 프리미엄보다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달래기에 어려움이 컸다. 미국 사회가 여전히 여성 정치인에게는 유리천장의 벽이 있다는 것도 해리스 후보에게는 핸디캡이었다. 남녀를 구분하는 낙태권 등 젠더 이슈만으로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돈의, 돈에 의한, 돈을 위한 동맹(Alliance of

the money, by the money, for the money)’을 강조하는 트럼프가 불사조처럼 살아왔다. 깊은 동맹(deep alliance)의 시대는 가고 거래 동맹(easy alliance) 시대가 도래했다. 상호거래에 따른 이득의 관점에서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와 통화하고 협력관계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동상이몽은 불가피하다.

MAGA 2기 외교안보 정책 전망

1) 바이든 지우기 정책(ABB)

불사조 트럼프가 귀환했다. 그의 정책은 바이든 정부 정책 지우기(ABB: Anything but Biden)가 될 것이다. 개입주의(engagement)보다는 극단적이고 편협한 고립주의(narrow-minded isolation)로 회귀하면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종료된다. 미국의 전통적인 국제질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에 걸맞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다. 그는 지난 7월 19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지명수락 연설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자동차 및 기타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변화 협약 탈퇴 등 국제협약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을 현 행정부가 일으켰다고 비난하며, 모든 국제적 위기를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지금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만, 한국, 필리핀,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분쟁의 유령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이 재임 시절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고” 그의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다시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도 내가 돌아오면 보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말해 지지자들의 웃음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모든 국내 및 외교안보 공약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황야의 무법자 카우보이처럼 모든 현행 정책에 칼질이 들어갈 것이다.

2)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외교안보 공약 : Zero base approach

가. 안보 불확실성 심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트럼프 당선으로 한미동맹 조약(since 1953)이 체결된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과 시련기가 다가올 것이다. 그의 대외 정책은 예측 불가능성으로 기존 틀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동맹국들은 그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책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대한(對韓) 정책에서 트럼프의 전가보도가 될 것이다. 미 국방수권법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항목이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개인적 철학과 신념, 지난 1기에 지속적인 주장에도 참모들에 의해 완수하지 못했던 부분을 미완의 과제처럼 인식할 수 있다. 총성파들로 채워진 2기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은 경쟁적으로 MAGA 정책을 추진해서 트럼프의 신임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의회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여 주한미군 철수 관련 법안 개정이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철수, 감축 등을 포함한 상징적·실질적 조치를 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국익을 위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유네스코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며, 미국의 주권을 강조한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 뭉을 견제하고,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입장이다.¹ ▲이란 핵협정 탈퇴와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했다.

나. GDP 대비 3.5% 방위비 인상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국과의 관계 재조정으로 NATO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한다.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동맹국의 방위비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NATO 국가들의 방위비를 GDP의 3% 선까지 인상을 요구하여 독일이 반발하는 등 동맹국과의 갈

¹ 차기 국무장관으로 유력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58)은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 및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등을 강조한다.

등은 불가피하다.² 그는 2020년 한국의 방위비를 연 10억달러에서 50억달러 선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2기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9월 일본이 최근 방위비를 크게 올렸으며 한국도 미국처럼 GDP의 3~3.5%를 방위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0월 15일 자신이 재임 중이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가 언급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한미는 10월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문안을 타결했다.

※“그들은 머니 머신(They are Money Machine)”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예상되는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9월 26일 미국기업연구소(AEI) 대담에서도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인데, 미국처럼 3%~3.5% 까지 올라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올 10월 15일 시카고 경제 클럽 대담에 참여한 트럼프 당선인 (당시 대통령 후보). 이 자리에서 그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해 “자신이 대통령이였다면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500억원)는 내게 했을 것”, “한국은 머니 머신” 이라고 언급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에 매우 헌신적이며 과거에 한 일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내 생각에 한국 내 우려의 일부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이자 국무장관 후보들 중 하나로 거론되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11월 9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군사적 기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북핵 군축 협상: nuclear parity approach

가치동맹(deep alliance)보다는 동맹관계를 거래로 인식하는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서 기존의 비핵화 입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30년간 동맹국들은 북한을 통제하지 못한 만큼 북핵 협상을 위해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을 바꿀 시점이나 아직은 한국 자체의 핵무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급진적인 정책 전환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국방정책 보고서’를 총괄 집필하

2 차기 국가안보보좌관(NSC)으로는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58)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럽 주요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등을 외친다. 그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한 8월 18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돈을 지불하라”고 압박했다. 올 3월 팻캐스트에서도 “미국에는 강한(tough) 수석 외교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북 간 군축 협상이 안될 건 뭐가, 북핵은 호리병을 빠져나온 지니(genie out of the bottle)”라고 표현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주장한다. 아프가니스탄 미군 병력 감축 등 트럼프 후보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북한 김정은과 직거래 회담을 통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핵동결에 합의하는 스몰딜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9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한 것도 북핵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반영한 발언이다. 워싱턴의 기류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친한파 공화당 의원들이나 보수 연구소(think tank)에서 부분비핵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희망적 사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마. 미중 갈등과 동북아의 긴장

트럼프가 동맹 부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 견제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가 대중 고관세 조치를 단행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을 심화하면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수사적으로나마 완화된 듯 보였던 탈동조화(decoupling) 기조가 다시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는 대중 견제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과 핵협의그룹(NCG)을 북한이 아닌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병력 이동을 통해 대만 방어에 나설 수 있다. NCG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성과를 희석하는 차원에서 그 기능을 중국 견제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아예

NCG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고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사. 트럼프, 푸틴·김정은 브로맨스

트럼프의 당선으로 ‘트럼프-푸틴-김정은’ 3각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한국이 이 3각 구도에서 ‘패싱’(투명인간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을 압박해온 반면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친근감을 표시해왔다.

트럼프는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피격 후 처음으로 열린 유세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잘 지낸 것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전세계 독재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자랑했다. AFP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로이터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잘 지냈다면 9월 13일 자신을 겨냥한 암살 미수 사건 후 시 주석에게서 “아름다운 편지(note)”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트럼프는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잘 지냈다”며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시 주석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며칠 전에 나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썼다”고 말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동맹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동맹이 우리를 이용해왔다.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오르반 총리가 마러라고 회동에서 자신을 칭찬한 것을 자랑



했고 김 위원장과의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선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약함’을 비판하는 소재로도 스트롱맨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푸틴 대통령, 시 주석을 거론하며 “바이든은 그들을 한 번도 압도하지 못했다”면서 “그는 국제적 망신이고, 세계의 지도자들은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맺는말 : 강한 국력과 스마트한 외교로 트럼프즘 파고 넘어야

한국은 북러 군사 밀착 속에서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기존 한미동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흐름이 예상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던 4년 전 최대 화두가 미중 전략경쟁이었다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반미 전선과의 관계 개선 및 압박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 혼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확장억제, 원자력협정 개정 및 통상 등 모든 현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시나리오도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아마 한국의 방위비 인상분으로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다. 조약 체결 72주년을 맞는 내년 을사년(乙巳年)은 새로운 한미관계의 원년이 될 것이다. 한국의 외교 안보를 미국의 배려에만 의탁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초격차 기술의 우위와 냉정한 외교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자강불식(自強不息)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국

력 신장만이 트럼프의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해외 분쟁 불개입과 자국 우선주의, 극단적 보호무역과 미국 내 생산 압박 이슈가 커지면서 한국은 보다 심각한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 2기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흐름 하에서 한국의 국익 확보에 차가운 겨울이 올 수도 있다(cold winter is coming)는 점을 예고한다.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세심하며 노련한 스마트 외교가 필요하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북한 문제 전망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겸 스크랜튼대학장)



〈트럼프 당선인(당시 대통령 후보)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7일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312명은 물론 일반 투표에서도 51% 지지를 거두면서, 보란 듯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미국의 미래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은 트럼프 후보를 최종 선택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웠을 때, 해리스 부통령은 적극적으로 선거 분위기 반전의 모멘텀

을 이어갔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줄곧 준비되지 않은 후보의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집권 2기는 전례가 없이 요동치는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세 가지 차원의 관전 포인트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당선 되면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는 부분이다. 공화당이 거둔 “레드 스위프(Red Sweep)”이라는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인해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의중은 고스란히 상하원에 반영되어, 의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승인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속단키는 어려우나, 우크라이나가 다소 불리한 입장에서 휴전 및 평화협상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문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되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의 전투 소식이 외신을 탔다.

러시아로부터 다탄두 미사일 및 핵잠수함과 같은 첨단 기술은 물론이고,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의 외교 진출까지 꾀하게 된다면, 북한 문제를 다루는 한국과 미국의 고민의 고민은 매우 복잡해 질 것이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간 대북 정책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처럼, 다자외교에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미국의 손실과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면, 우크라이나 전쟁 처리 과정에서 북한의 반인륜적 전투병 파병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통해 생존의 기회를 얻으려는 북한의 입장에서, 소위 ‘글로벌 사우스’로 알려진 상당수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북한의 이러한 시도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점쳐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올 초부터 한국을 향해 소위 ‘적대적인 두 개 국가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식으로 표현해서, 민족의 절대 목표인 통일과 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다양한 해석만 있을 뿐, 그 배경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 ‘두 국가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의 독자적인 외교 관계 개선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조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야 하는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중국 관계 및 한미중 관계의 문제이다. 트럼프의 공약에는 대중국 투자 금지, 중국 상품



〈우크라이나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의 모습〉

에 대한 추가 관세 부가, 동맹국들의 대중국 투자 제한 등 전 방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오늘의 트럼프를 있게 만든 중요한 전제 조건이므로, 취임 이후 어떤 형태로든 드라이브를 걸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가 가히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 수준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전쟁의 결과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현재처럼 중국이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시점이야말로, 중국의 성장을 관리할 최적의 기회라는 게 트럼프와 그를 돕는 전략가들의 판단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막을 내린 2024년 APEC 정상회의와 ‘G20 리마 정상회의’에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대중국 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시작을 한미중 간 안정적인 외교관계를 세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 정책 자산인

지를 보여준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중국 관계에 크게 개의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미국과 중국 모두를 우리 편으로 끌어 들여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2+2” 차원의 한미중 정책협의회 같은 3자 대화 채널을 만들 수만 있다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입장은 더욱 단단해 질 것이다. 즉,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고위급 상시 삼국협의체를 출범시킬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공존의 공간을 찾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한미중 외교 관계 상시화를 우리의 어젠다로 만들었으면 한다.

셋째,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은 과연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로 또 한 번 과감한 딜을 시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무래도 향후의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은 2019년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 5년간 북한의 핵무력은 더욱 고도화 되었고, 한국과 미국을 향한 김정은의 적대심은 더욱 커진 게 사실이다. 정확히 ‘고도화’와 ‘적대감’의 크기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선물의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외교와 ‘거래’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대북한 딜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향후 1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중동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그 모멘텀을 향유하는 게 중요하지, 북한이나 대만 문제로 인해 스스로 외교적 난제를 만들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






〈트럼프 당선인(당시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뒤 기자회견 도중 심각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런데 만에 하나, 김정은이 큰 보상을 요구하는 대신, 그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에서 북한의 자원을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이권을 제안한다면, 혹시 세상일은 또 모를 일이다.

관련하여 북핵 문제의 향배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문제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짐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다만, 지난 7월 및 8월에 열린 미국의 공화당 및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두 정당은 모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정책을 폐기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지금까지 미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 되던,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일종의 ‘핵군축’과 같은 시도가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와 연동되어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자체 핵보유론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한국의 핵보유가 현실화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한미동맹이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커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지금까지 한미관계의 핵심 키워드였던 ‘가치와 규범’은 잠시 접어둬야 할 것 같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라서, 지난 집권 1기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스라엘 문제를 애지중지 하면서 다룬 건 아닐 것이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이슈는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의 비용 문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합의를 보느냐에 달려 있다. 외교 관계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늘 함께 작용하기 마련이어서, 한미 관계에 놓인 다양한 이슈들을 관리하는 우리의 정교한 노력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칠 영향

문 성 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지난 11월 5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어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는 그간 미국의 여론 조사를 뛰어넘는 결과였다. 당초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미국 언론기관 여론조사는 5:5로 박빙이었고 차이는 0.003%에 불과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트럼프는 선거인단 수는 물론 득표율에서도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특히나 7개 경합주에서 7:0이라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거기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점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번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숨죽이며 주목했다.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안보는 물론 경제나 제반 영역에서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 해리스가 된다면 현 바이든 정부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미래가 예측되었지만, 트럼프의 경우 바이든이 해 온 모든 정책들을 뒤집어 놓을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략으로 개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는 기간 이어지고 있다. 러-북 간 불법 밀착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지난 6월 러-북은 사실상 동맹조약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했다. 김정은은 푸틴의 추종자임을 자처하면서 무려 1천만 톤에 달하는 각종 포탄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냈고 급기야 10월 중순에는 폭풍 군단(11군단) 위주로 1만 명이 넘는 병력을 침략전쟁에 용병으로 보내면서 러-우 전쟁 상황 전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개시된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휴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 Mak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 동아일보 재인용)〉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대선에 나선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물론, 국제정세에도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면 “러-우 전쟁을 24시간 내 끝낼 것”임을 공언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종전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 푸틴은 트럼프의 재집권이 자신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전에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압박하여 자신이 빼앗긴 영토 쿠르스크에서 내쫓고 자기가 이미 점령한 남부지역 우크라이나 영토는 지배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종결지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및 프랑스 등 국가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에 힘입어 러시아 본토 타격에 나서는 등 전쟁 상황이 극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 중동 상황은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날개를 단 느낌일 것이다. 트럼프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왔다는 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한반도 주변 정세

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안보적 함의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 대선 결과가 미북 관계와 북한 핵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를 정리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중점 추진해야 할 국가안보와 자유통일을 위한 대응전략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본 후,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제목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안보적 함의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안보적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안보적 차원에서 트럼프 2기가 지향하는 특징이나 방향성을 짚어보자는 것이다. 첫째, 트럼프 2기는 본인이 주창한 바대로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세울 것이다. 그렇다면 동맹보다는 미국 국익을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자유민주라는 가치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유불리를 더 중요한 요소로 따질 것이란 얘기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이 분명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지만, 잘사는 나라이니 그만큼 안보적 차원의 부담을 늘리라고 요구할 것이다. 유럽의 나토 동맹국을 향해서도 방위비 비율을 더욱 올리라고 요구한다. 그리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부담을 줄이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고 보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와 일찍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지만,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둘째, 트럼

프 2기는 “대중국 견제와 핵 비확산”이라는 기본 입장은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트럼프 외교의 핵심은 대중견제에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했고, 중국 견제를 위한 외교, 군사, 경제적 노력을 강화했다. 트럼프 2기에 중용될 인사들 역시 중국 견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이다. 아울러 미국은 기본적으로 핵 비확산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지속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트럼프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대는 애당초 접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복음주의적 교회지도자의 90%가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후문이 있다. 트럼프의 개인적 인성은 별로이지만 트럼프를 추종하는 세력의 지향점은 미

국 건국 정신인 기독교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여기서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경제적으로 부를 추구하면서 미국만 잘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보다는 성서적 진리와 가치에 입각한 본래 미국의 모습을 회복하는 의미로 본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1기 당시 실패를 거울삼아 2기에는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의 기회가 없기에 앞으로 4년 동안 자신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 로널드 레이건 등과 어깨를 견줄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클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3가지 함의는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11월 21일 열린 국방발전-2024 개막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과거 협상 경험을 언급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미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에 미칠 영향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공언한 바와 같이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펼치면서 다시금 대화의 자리에 복원할 것인가? 북한의 핵 개발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일단 핵무기를 동결하면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주는 협상으로 이어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미북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당분간 미북관계 진전은 불확실할 것이며 북한 비핵화 진전에 대한 기대도 난망할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에 확정된 이후 상당 시간 침묵을 이어가던 김정은이 11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연설을 통해 미국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연설에서 “우리(북한)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 조선(대북)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과 정상회담으로 친분을 쌓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후 다양하게 제기되는 미북 정상회담 및 비핵협상 재개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지금처럼)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제반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 시각 절감케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특히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다짐했다. 이는 향후 비핵화를 전제한 협상에는 결코 응할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자신의 핵개발 정당성을 재강조하고 모든 책임을 미국 등 한국(추종세력)으로 전가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거짓 선전의 재현이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미북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의 향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푸틴과의 혈맹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북한 군인들이 피를 뿌려서라도 푸틴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믿고 모험적인 도박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러-우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끝나게 되고 푸틴으로서 지금처럼 김정은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에도 러북 밀착이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푸틴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휴전 또는 종전된다면 푸틴의 정치적 생명마저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리될 경우 김정은은 닭 쫓던



〈리투아니아 비정부기구(NGO) 블루엘로 대표 조나스 오만은 우크라이나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교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병사가 탈취한 인공기를 들고 있는 모습.〉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역사적으로 과거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는 탄탄대로를 걷지는 못했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갈라치기 외교를 펼쳐왔기 때문이다. 러북 관계가 다시금 소원해지고 이로 인해 김정은의 입지가 흔들리게 된다면 지금의 태도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 자력갱생을 밀어붙이는 강경일변도의 노선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된다면 지금처럼 미국을 향해 걸어 잠겼던 대화의 물꼬가 다시금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핵을 거머쥐고 이것이야말로 생존과 대남적화의 힘이라는 집념은 더 이상 추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에 미칠 영향

남북관계와 동북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첫째, 남북관계는 단기간 내 별다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북 간 대화가 전개되기 어려울 것이고 김정은이 걸어 잠근 대남 대화의 문을 당장 열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남풍 유입을 우려하여 통일 지우기, 2국가론을 추진하는 지금의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현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당면한 것은 어떻게든 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오물 쓰레기 부양이나 GPS 교란 등의 도발은 계속 이어가면서 남남갈등과 한미 이간에 주력할 것이다. 추가 정찰위성이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추가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 조성을 기도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기조는 역시 대중국 견제다. 그 핵심 정책은 바로 인도-태평양전략이다. 이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강력한 기제가 바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는 아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남북관계나 동북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가안보와 자유 통일을 위한 대응 전략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에게 위기의 측면과 기회의 측면이 있다. 위기 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자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째,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인식을 든든히 해나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상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광범위한 인맥을 동원하여 소통의 창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동맹을 더욱 탄탄하게 발전시키고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안보협력

을 공고히 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와 맺은 워싱턴 선언에 입각한 일체형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캠프데이비드 합의의 제도화를 더욱 강력 추진해야 한다. 셋째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8.15 자유 통일 독트린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드는 일임을 적극 설득하여 지지와 지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국가안보를 더욱 강화하며 자유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기도제목


첫째, 트럼프 2기 출범을 통해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독교 건국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국가안보를 더욱 든든히 해나가도록 기도하자.

둘째, 대한민국이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국론을 결집하고,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위기 요인은 최소화하며 기회 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동인식의 장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자.

셋째, 2022년 2월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전쟁에서 푸틴의 승리를 반드시 막아 주시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며, 북한군의 침략전쟁에 용병으로 파병 등 러북 간 불법 밀착이 대한민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기도하자.

넷째,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

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이 더욱 확대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다섯째,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 통일의 꿈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3)

김 열 매 성도

1994년, 김일성이 죽고 나라의 분위기는 뒤숭숭했지만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먹이고 입히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해 8월에 고등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살고 있던 농장 마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대학 진학을 꿈꾸었습니다. 집에 가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을 모아 방과 후 공부 모임을 만들었는데, 저도 그 모임에 속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은 제가 찬양을 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면서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칭찬해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북한에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을 거스르는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체제에 충성하며 출세하고자 애쓰지 말고 한적한 곳에서 자기 기술로 생활하며 신앙을 잘 지키며

살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늘 공부 대신 아버지의 양장 기술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학부모 총회를 할 때에도 자녀들의 평가서를 보시면서 좋아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학교 동아리를 다니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칭찬은커녕 오히려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 같으면 공부 잘 한다고 칭찬해주셨을 텐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하는 모습조차 달가워하지 않으시니 서운함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선생님께 뇌물을 드리기도 한다던데 우리 부모님은 선생님이 양복점에 찾아와도 반겨주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러한 우리 부모님의 태도에 기분이 상하셔서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에도 저는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학 시험을 보는 것도 아무나 볼 수 없고 추천이 있어야 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딱 10명만 대학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운 좋게 저도 그 명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대학 진학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학 진학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는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대입 시험을 보러 가기 전날 저녁, 식사자리에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시험 보러 가야 합니다.”

어른들께서 제 말을 들으시고도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깨고 입을 연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열매 너, 내일 시험장에 갈꺼면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아버지의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한 그 한마디에 결국 저는 다음 날, 시험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다들 저를 보고 놀라시며 왜 시험장에 가지 않았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던 해는 1994년 8월이었습니다. 94년 7월에 김일성이 죽고 북한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김일성 애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서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겨울, 저는 출가 전 처녀들과 청년들, 그리고 60세 미만 장년들이 함께하는 동계 군사훈련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15일간 다른 지역에서 숙박을 하면서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 떠나기 하루 전날, 그날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북쪽 겨울은 찬바람이 불면서 유난히 춥습니다. 그 추운 날, 밖에서 일하는 딸을 보기가 마음에 편찮으셨던 아버지께서 제가 일하는 곳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일하는 주변으로 바람을 막아주시기 위해 벋 짚단을 쌓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다가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쌓아주시는 따뜻한 바람벽을 다 헐어버리면서 “이런 것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냉랭하게 소리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해도 하지 못한 채 군사훈련을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그런 못난 행동을 했던 저의 모습에 눈물이 나고 아픈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날이 저에게 아버지와 의 마지막 날이 될 줄도 모르고 했던 철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지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중,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소대 아침 점검을 마친 어느 날, 소대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 이제 바로 보위부실에 가보라.” 저는 그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 오늘 또 무슨 서류 정리가 있나보다’ 하고는 보위부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새하얀 눈이 무릎까지 와 있었고 이른 아침이라 아직 컴컴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조심 눈을 밝으며 보위부실로 가던 도중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주변을 둘러보니 보위부실 뒷벽에 오빠가 몸을 숨기고 서서는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빠를 보고 막 달음질하여 오빠 앞에 섰는데, 오빠의 얼굴빛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눈 주변 피부가 시커멓게 변해 있는 오빠의 모습은 슬픔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오빠,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왔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묻자 오빠는 도리어 제게 어디에 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대장이 보위부실에 가보라고 해서 가는 중이라고 하자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열매야, 어제 아버지 잡혀가셨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충격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가 싶어 한동안 오빠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니 사람들이 왜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봤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비장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열매야, 나도 보위부에서 불러서 왔다. 내가 혼자 보위부에 들어갈 거니까 너는 돌아가라.”



지금 생각해보아도 그날 오빠가 저를 돌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유난히 겁이 많았던 제가 보위부에 들어가 무슨 말을 하였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보위부에서 겁만 한번 주어도 저는 부모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실토해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종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약함을 아시고 오빠를 통해 그 위험했던 시간을 면케 해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오빠는 수차례 보위부실에 끌려가 취조를 받으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군 보위부에서 불러들이면 가서 조사를 받고, 도 보위부에서 내려와 찾으면 또 가야했고, 나중에는 평양 중앙 보위부에서까지 내려와 찾아 대서 불러가 취조와 심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빠는 우리 4형제 중 맏이로, 또 집안의 대를 이어 갈 외아들이었습니다. 큰 오빠로서의 책임감을 홀로 다 짊어지고 받아야 했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오빠의 나이 겨우 19살이었습니다. 평양 보위부에서 내려와 오빠를 조사할 때는 무릎을 꿇어 앉혀놓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있게 하고는 화장실도 보내지 않고 심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빠를 슬슬 구슬려 보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공포를 주면서 위협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위협받는 두려움의 순간들을 보내면서 오빠는 자신이 언제 바지에 대소변을 보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의심하고 어느 틈에 우리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였는지 보위부원들은 오빠에게 저희 할머니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녹음된 도청기를 틀어놓고는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아니?’라고 묻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군, 도, 중앙보위부의 모든 심문을 마치고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오빠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사 훈련을 마치고 돌아 온 나는 곧장 아버지께서 옷을 지으시면서 일하시던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수도 없이 아버지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기 바로 며칠 전에 잡혀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들도 나란히 방에 앉아 아버지를 찾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 농장일을 마치고 들어오신 어머니가 저희들을 보시고는 급히 저희들 곁으로 오셔서 입을 막으며 울지 말라고, 소리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에 도청기가 있어 다 녹음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소리 내서 울면 너희들까지 위험해진다. 절대 집에서나 밖에서나 아버지 일로 슬퍼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말아라.”

아버지가 잡혀 가셨는데도 마음껏 울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북한입니다. 부모나 형제가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잡혀가면 그것을 슬퍼해서는 안 되는 곳이 북한입니다. 잡혀간 사람이 아무리 부모, 형제, 자식이어도 군중들과 함께 비난하고, 같이 돌을 던져야 사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우리 형제들은 슬퍼도 소리 내어 울지 못하였고, 더욱이 밖에 나가서는 슬픈 내색을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소리 내어 울 수 있는 자유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잡혀가시고 저희 집은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낮에 어머니와 저는 국가 일을 하러 농장에 나가 일하고, 동생들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커다란 집에 냉랭함이 도는 방에 모여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잡혀 갈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밤마다 밖에는 동네 청

년들이 집 주변에 진을 치고 앉아 저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밤새 감시를 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딘가로 끌려가게 될 것인지 예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와 어머니는 매일 저녁 끌려갈 준비를 하시며 짐을 싸셨습니다. 요원들이 와서 끌려갈 때는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몇 가지밖에 챙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최소한의 부피로 짐을 싸두고 상시 준비해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의약품과 옷가지들, 덮을 이불과 바람을 막아 줄 비닐박막 등이 들어있었고, 그렇게 6-7개 정도를 준비해서 싸 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잡혀가신 후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는 남겨진 쌀로 하얀 이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남은 식량을 국가에 다 빼앗기기 전에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차려주시는 귀한 밥상인데도 그때는 쌀밥이 그저 모래알 같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추운 겨울 날, 손주들이 어디로 실려 가다 떨어 놓아도 얼어 죽지 않도록 입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옷을 껴입히셨습니다. 그렇게 옷을 껴입고 모든 신경이 곤두서서 모여 있으면 가끔씩 멀리서부터 차 소리 같은 것이 미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 몸에 섬뜩한 전율이 오면서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 한 공포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 우릴 끌고가려고 오는 구나, 이제는 실려가야 되는구나’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로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끌려 갈 준비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서 할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연세도 깊으시니 작은 아들 집에 가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내가 갈 길인데 가야지, 내가 저 어린 것들만 보내놓고 무슨 맘이 편하게 살겠다고 그러겠는가, 같이 가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저희 앞에서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특히 할머니는 아버지가 잡혀 가시고 나서도 아버지께서 풀려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지 않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미 많이 쇠약해지신 상태였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신 할머니는 누워서도 아무것도 입에 넣지 못하셨습니다. 저의 작은 아버지와 삼촌네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를 보러 저희 집을 찾아 올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외부와의 차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 몸져누우신 지 3일 쯤 되었을 까요... 그날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1-2시쯤 갑자기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어머님께서 혼자 할머니 곁에 앉아 지키고 계시다가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흔들어 깨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려보세요”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실 뿐 아무런 반응도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열매야, 이리와 앉으렴.” 그리고는 저에게 할머니를 안겨주시면서 잠깐만 이렇게 할머니 안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동네에 사시는 작은 아버지와 삼촌에게 알리기 위해 다급하게 집을 나서셨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고 5분 정도 지났을 때쯤, 할머니의 숨소리는 더 힘들게 들렸습니다. 깊이 한번 숨을 쉬시고는 한 참을 멈추고 계시고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형제들이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눈을 떠보세요. 할머니 무서워요.”하면서 소리 내 울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애원해도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고 그렇게 몇 번의 숨을 더 쉬시고는 숨을 멈추셨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할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할머니를 외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기동 같던 할머니이셨기 때문에 할머니를 잃은 아픔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할머니를 받아 자리에 눕히시며 저희에게 눈물을 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올 테니 눈물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할머니 보고 슬퍼하면 너희들이 더 위험해진다. 그러지 않아도 너희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교육 받았다고 의심하고들 있으니 장례식 날에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할머니를 산에 모시는 마지막 날에도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리며 슬픔을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진 동네 사람들은 ‘저 집에 할머니가 주동자여서 끌고 가려 했는데 애들이 할머니에

게 약을 먹여 죽였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퍼트리
고 다녔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
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라.
(히브리서 10:32-34)



사랑하는 할머니도, 그리고 아버지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 땅
에서 나그네 세월 동안 하나님만을 소유의 전부
로 여기고 사셨고, 마지막까지 세상의 조롱과 멸
시, 그리고 무고한 박해에 희생당하셨지만 주께서
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
아있는 저희들의 처지는 여전히 최악이었지만 큰
환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만 의지했던 할머니와 아버지의 모범 덕분임을 고
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회상하며 비

록 당시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지만 이제는 오히
려 천국의 소망으로 재회할 그 날을 기다릴 수 있
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북한법 변화를 통해서
보는 현대 북한의 이해

저 자: 임상순 외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년 10월 14일

가 격: 20,000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법’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에는 ‘법제정법’을 만들어 법 제정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2019년을 기점으로 준법기풍을 강조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나 ‘평양문화어보 호법’ 등도 과거 같으면 지도자의 명령 등으로 처리했을 처벌과 단속을 법률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법률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서는 법률보다도 지도자


의 교시나 당의 규약 등이 우선시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권력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는 ‘법에 의한 통치’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정된 법률은 주민들에게 분명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특정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결국 그 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이기에, 북한이 제정하는 법률은 북한의 상황이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오늘 소개할 책, “북한법 변화를 통해서 보는

현대 북한의 이해”는 북한의 법률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제목만 언뜻 보았을 때에는 북한 법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로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정책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이 책은 북한의 법이 그보다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통해 북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예를 들어 책의 초반부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면, 북한 당국의 헌법과 당 규약의 개정 내용, 그리고 2013년 제정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와 이 법률을 대신하여 2022년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등의 법령을 통해 북한의 핵 정책 변화와 현재의 노선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이 책은 이 밖에도 농업과 식량문제, 기업과 무역, 기후변화와 재해, 사회문화통제, 교육, 보건의료, 관광, 방송, 인권 등 북한 사회 전반을 망라하는 다양한 분야를 북한이 제정한 관련분야의 법률을 통해 살펴본다.

개인적으로 이 책이 시도하는 ‘북한의 법률을 통한 북한 이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인식하는 현실과 그에 대한 대응 및 정책 노선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외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 북한 스스로가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 북한법이기에, 어떤 사안에 대해 외부에서의 평가나 분석이 아닌 북한 스스로가 이해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왔다. 또한 법은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개정되고, 또 유사한 법이 추가되는 등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만큼 북한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이 책에서도 여러 차

례 언급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법률은 결국 당국의 입장이나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니 만큼 때로는 제정된 법과 실제 현실이 상당히 괴리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들이 여럿 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률에서 규정된 지원과 보장 시스템이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잘 분별할 때 이 책이 말하는 북한 법률을 통한 북한 이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법의 내용을 다루는 책이다 보니 아무래도 내용이 딱딱한 부분도 있고, 책의 구성도 교양서라기보다는 대학교의 과목 교재 같은 구성이다. 그렇지만 그만큼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의 각 분야별로 과거로부터 최근 법률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연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률을 통해 표현되는 북한의 현실과 당국의 대응에 대해 관심 있는 연구자에게 “북한법 변화를 통해서 보는 현대 북한의 이해”를 추천해본다. 


북, “최신형 화성-19형 시험발사… 최종완결판 ICBM”



북한이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10월 31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험발사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시험 발사를 승인했으며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성포-19형은 최대정점고도 7천687.5km로 상승해 1천1.2km 거리를 5천156

초(85.9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목표 수역에 탄착했다. 통신은 화성포-19형이 “화성포-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은 화성포-19형을 11축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발사했다. 화염의 색과 형태를 볼 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동체 길이와 최대고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미사일의 개량형이 아닌 신형 ICBM으로 평가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추가로 식별된 고체연료 엔진 시험 정황은 식별되지 않았는데, 추가 엔진 시험이 없었음에도 개량형이 아닌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서 바로 시험 발사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북러 ‘전쟁시 지원’ 북러조약 잇단 비준… “파병 공식화 가능성”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1월 12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

유엔 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추가했다. 제3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제3위원회는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우려와 일명 ‘3대 악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 모두에 대해 폐지·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포


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악법 문제는 최근 진행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에서도 주된 의제로 다뤄진 바 있다.

제3위원회는 또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오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적적 의무를 지닌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참고: 연합뉴스, 11월 21일) 

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러 양국이 모두 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는 북러가 미국 대선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 비준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북이 조약 발효 후 조약과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 연합뉴스, 11월 21일) 

북, 유엔서 ‘공개처형’ 인정… “원칙은 비공개지만 예외도 있어”



〈11월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이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원칙적으로 사형은 정해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지만,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범자 중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공개처형을 원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북한이 지금까지 부인했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反)국가 범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체제전

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화시설 수용자들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수용자들에게 위생적인 환경과 운동 기회도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교화 시설에서 고문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치범들이 따로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지금껏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대해 “공화국에는 정치범이 없다”라며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

앞서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는 5년 만에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가 열렸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다. 유엔 회원국들은 정치범 수용소나 교정시설인 교화소 등에서 고문과 학대,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는다는 많은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참고: 연합뉴스, 11월 11일)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전투 참여”



〈우크라이나군 전략소통·정보안전센터(SPRAVDI)에서 공개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는 모습〉


한국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 일부가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러시아 군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 일부가 전투에 참여했다는 동향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파병된 북한 군 1만 1천 명 정도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지난 10월 하순쯤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병사들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무인기 훈련을 받았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 희생자가 늘 수밖에 없어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파병을 요구하고 북한도 이에 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이라며, 북한 군의 투항과 사상자 발생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심리전과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여러 우방국과 자체 정보까지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군수물자를 추가로 수출하고 있는 동향도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나 장비, 기술을 받아들일 지에 대해 밀착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더 의존하게 되고 절실히 해지기 때문에 넘겨주지 않아야 할 기술조차도 이 전해줄 수 있다”며 조기 종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고: 자유아시아방송, 11월 20일) 

김정은, 무장장비전시회에서 과거 미국과의 협상 언급... “미국과의 협상 갈데까지 가봤다”



〈11월 21일 국방발전-2024 개막식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미국과의 협상으로 직면한 결과는 '적대적인 대북정책'이었다고 밝히면서 국방력 강화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신문은 11월 22일 김정은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2024' 개막식에서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며 “그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정객들이 버릇처럼 입에 올리는 미국은 절대로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 교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괴설로 들린 지는 이미 오래”라며 “오늘날 조선반도 지역에 조성된 극단한 정세가 결코 상대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반도 정세악화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김정은의 이런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표면적으로는 미국과의 대화에 선을 그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협상의 여지를 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와 동시에 ‘적대시 정책 선 철회’라는 협상 재개의 조건을 다시 부각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투트랙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미국을 향해 북·미 대화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무장장비전시회-2023’에서 소총과 전차에서부터 지난달 31일 처음 발사한 신형 ICBM ‘화성-19형’에 이르기까지 최신에 군사 장비를 전시하며 자신들의 군사역량을 과시했다.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서는 최소 6종의 소형 무인기도 식별됐다. 이와 관련,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국방발전-2024 신형무기 공개자료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골판지 자폭드론으로 추정되는 드론을 공개했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골판지 드론에 사용되는 날개와 동체를 고정하는 고무줄이 식별됐다”며 “가성비 무기체계 골판왕이라 불리는 골판지 자폭드론까지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고: 중앙일보, 11월 22일) 

1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1기 때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과의 파격적인 북핵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북핵 폐기 대신 군축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화 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결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북한이 현재와 같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에서 벗어나는데 진전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동아시아의 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는 선교의 교두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선교사 대량 추방 사태 등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라 선교 현장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할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중관계와 한러관계가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과 현장 사역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역환경이 조성되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사용되는 등 러우 전쟁의 양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북한은 1만여 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태로운 행보가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 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에 더해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는 북한의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고 무고한 피 흘림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북한 선교 환경이 하루 속히 개선되도록, 그리고 러시아에 구금 중인 백 모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이 김정은 독자 우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개발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인간적인 지도자상을 연출하며 우상화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지도자 우상화를 위한 노력은 북한의 행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화가 강화될수록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주민들에 대한 억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도자 우상화가 중단되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선교사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북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송된 신자들과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내 지하교회 적발 사건들이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행방이 묘연해진 가구들을 고려할 때 예상 피해 규모가 어림잡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옥 선교사님께서 억류되신지 4천일이 지났고 그 외에도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북한 성도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외화 난에 따른 환율 상승 및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을 명목으로 시장 대신 국가 주도의 배급 경제를 다시금 활성화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대규모 수해까지 덮쳐 주민들의 어려움은 심해져만 갑니다. 북한이 하루 속히 방향을 돌이키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민생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극심한 추위의 겨울을 맞아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되도록, 이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도움의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4년 11월 29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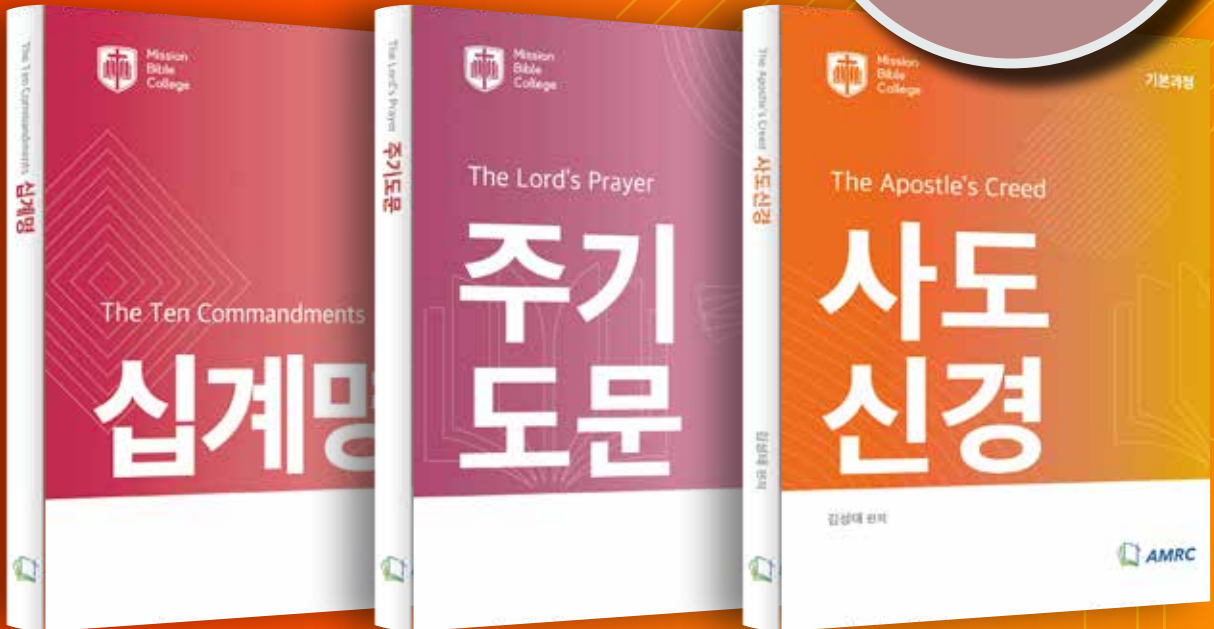
Mission
Bible
College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재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